

# 미수습자 수습·선체조사, 참사 3년만에야 본격화

## 꼭 풀어야 할 세월호 4대 과제

세월호가 인양과 거치가 마무리되면서 수습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미수습자 수습을 비롯해 선체 보존과 처리 작업도 곧 시작된다. 사고 때문에 3년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진도지역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다.

### 선체조사위, 16일 오후 진입 방법·수색 방안 등 결정

#### ①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가 물로 올라오고 동시에 세월호 선체 내부 미수습자 수색작업과 선체조사 남은 과제로 떠올랐다.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조사는 참사 3주기(16일) 이후 본격화된다.

13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선조위는 현재까지 입수한 영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선내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며 빠르면 오는 16일 오후 해수부, 미수습자 가족들과 논의해 최종 진입 방법과 수색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세월호를 들어올릴 때 미수습자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체가 침몰했던 해저 주변에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의 철제펜스를 설치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수습반을 따로 구성해 미수습자수습팀, 신원확인팀, 유류정리팀으로 나눠 수습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수습자 발견시 감찰 지휘 하에 현장보전, 채증, 기록, 유류품 수습 및 유전자 검사 등 실시할 예정이며, 입관, 추모식, 장례식장 및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은 유류품, 화물, 폐기물 등으로 분류한 뒤 유류품은 세척·건조 후 습득공고를 거쳐 가족 인도할 예정이다.

코리아살베지는 위킹타워를 설치해 작업자들이 미수습자부터 수색하고, 최종적으로는 내부에 쌓여있는 펠과 각종 화물, 구조물을 밖으로 꺼낼 계획이다. 아울러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해역에서는 수습 수색 작업이 계속된다.

### 국가적 불행 반면교사 ‘선체 보존’ 유력

#### ② 세월호 선체 처리 어떻게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조사가 마무리되면 남은 과제는 세월호 선체 보존 여부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종합보고서 제출시 선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선체 보존’이 유력해 보인다.

김창준 세월호선체조사위원장은 13일 “선체는 보존하는 것이 상식이 맞다”고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선체 보존 의견표명 전 조사위원들간 여러 의견이 나오겠지만,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 유가족 의견, 국내·해

외 선례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보존하는 게 상식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선체는 국가적 불행의 흔적이다. 불행의 기억은 남기는 것이 맞다. 정부의 무능, 직업 윤리를 저버린 선원 등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독일이 아우슈비츠 현장(수용소)을 보존하는 것을 보라”고 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도 지난달 27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인양 과정에서 선체 절단은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한 선체 보존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서 선체 보존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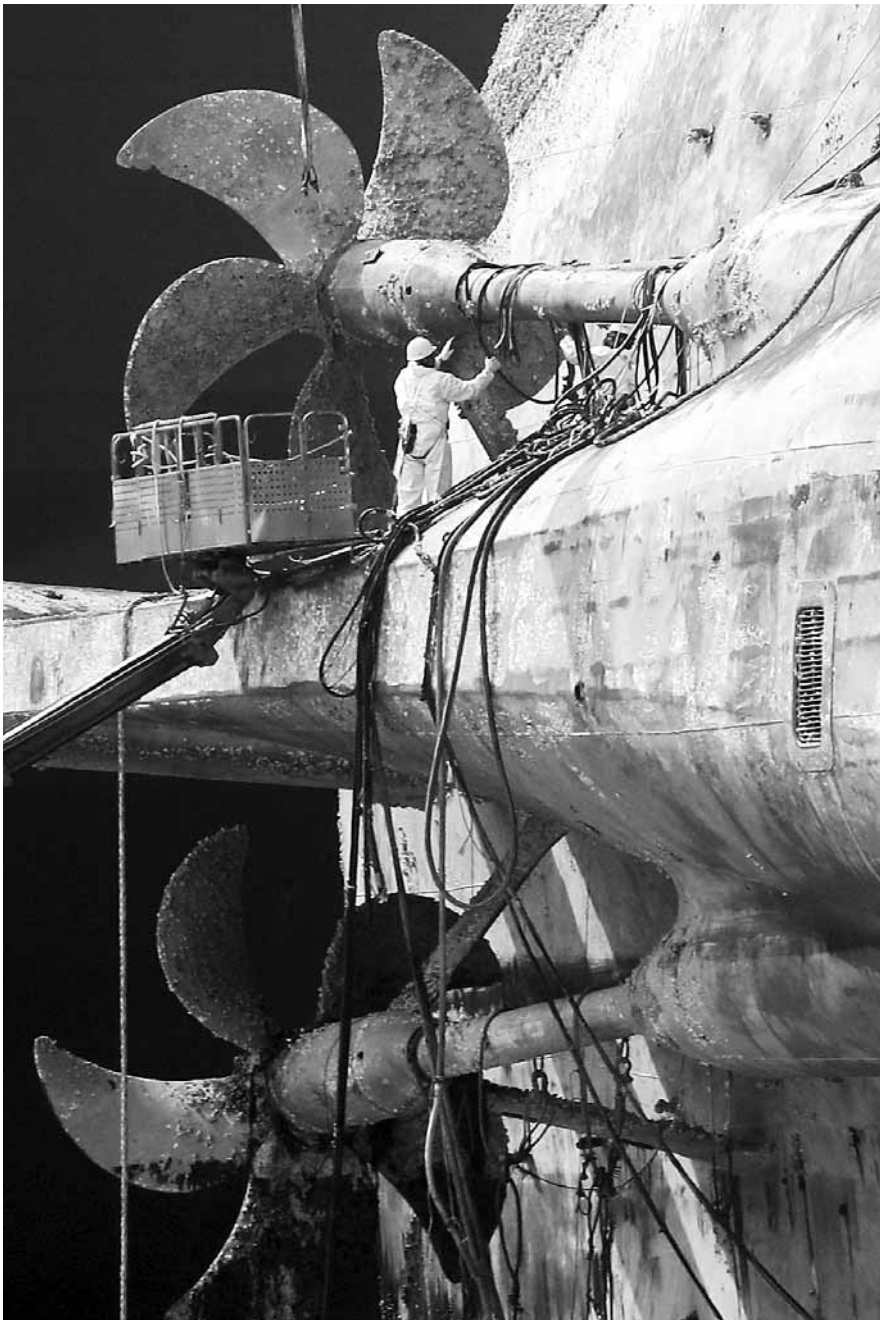
### 팽목항 인근에 2020년 개관...연간 운영비 25억은 속제

#### ③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진도 팽목항 인근에 건립을 추진 중인 국민해양안전관이 오는 2020년께 문을 열 예정이지만 연간 25억원 안팎의 운영비 부담이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13일 전남도와 진도군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세월호 추모분과위원회는 이달 중 진도군에서 열린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늦어도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19년 완

공한다는 게 진도군의 계획이다. 위치는 팽목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임화면 남동리 산 90번지 일원이다. 진도군은 총 10만㎡ 부지에 2층 규모(연면적 2700㎡)의 국민해양안전관을 짓고 주변에 추모 및 안전교육시설을 함께 건립해 국민해양안전파크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총 사업비는 270억원 수준이나 문제는 매년 25억원 안팎으로 소요될 운영비다. 국민해양안전관 협력 건립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인 탓에 정부가 운영비 전액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호기자 khh@



13일 오후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작업자들이 크레인에 올라 선미 스크루 부분의 지장물을 제거하고 있다. /목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3년전 기름피해 보상도 소송 중...선체 인양서 또 피해

#### ④ 진도 어민 피해 보상

세월호 침몰 당시 어선을 몰고 달려가 구조에 동참했던 동거차도 어민들이 냉감을 앓고 있다. 세월호 침몰 및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미역양식장이 커다란 피해를 봤지만 정부도, 보험회사도 뒷짐을 지고 있어서다. 어민들은 지난달 세월호 인양 당시 “세월호 가족에겐 죄송하다”고 뱃머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가 선(先)보상하라”고 해상시위도 했지만 여론의 관심만 반짝 받게 됐다.

12일 진도군과 동거차 어민들에 따르면 정부와 보험사 측은 현재까지 뚜렷한 보상안을 어민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어민들은 “3년 전 침몰 당시 기름피해 보상도 보험사와 소송이 여태 진행 중이다. 정부가 선보상해라”고 읊소했지만, 정부

는 “유출 피해를 낸 업체가 선정한 보험사에 요구하라”며 물러나 있다.

보험사 측은 지난달 기름유출 당시에는 “미역 등 수산물을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나머지에 대해 실사를 거쳐 보상하겠다”고 했다. 최근엔 동거차 어민들을 만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다”며 양식장 현황만 파악하고 돌아갔다는 게 어민들 설명이다. 진도군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기름 유출 피해를 본 양식장 등이 1601ha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최소 55억원, 미역과 톳 등 양식어업 피해가 8개 어촌계 377가(311ha) 16억3000만원, 마을어업권의 해조류 및 패류 피해는 14개 어촌계 497가(1290ha)로 피해액은 38억7000만원 등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목포시 공무원 ‘헌신의 4월’

신항에 세월호 상황실 2개소 등 지원

전남도·결산 감사...대선 업무까지 겹쳐

목포시 공무원들이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처되면서 ‘인 4역’을 맡아 고군분투하며 힘겨운 4월을 보내고 있다.

세월호 지원, 전남도 감사, 결산 검사에 대한 준비업무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공직자들에게는 무척이나 ‘버거운 4월’이 되고 있다.

목포시는 세월호 목포 신항 거처 이후 시 차원의 지원 대책본부를 꾸리고 종합상황실 2개소와 종합안내소 1개소 등을 운영 중이다.

이곳에 설치된 각종 부스에서 평일에는 30명이, 주말에는 60여명이 동원돼 참배객을 위한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안전도시건설국 소속 전 직원들은 목포시 공직자들은 또 지난달 29일부터 14일까지 17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감사반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아 피로감이 극대화된 상태다. 여기에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2016년도 목포시 예산에 대한 결산감사도 진행되고 있다.

앞선 데 맞춘 격으로 대선 준비업무까지 이어져 요즘 목포시 공무원들은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만큼 4중고를 겪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게다가 5월 황금연휴(최장 9일)를 맞아 각종 여행이나 휴가계획을 세우고 예약까지 마쳤던 목포시 공무원들은 세월호와 대통령 선거 업무 때문에 모처럼의 휴식 계획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목포시의 한 공무원은 “세월호 지원 업무 등이 합들긴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인 만큼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만 5월 황금연휴를 기대했던 가족들이 아쉬워해 미안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홈페이지에는 세월호와 관련 전국 각지에서 감사의 글이 담겨져 있다.

수원에 거주한다는 임중혁 씨는 “목포시가 봄 축제까지 취소하고 ‘목포시민 모두가 상주’라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지원한다니 가슴 따뜻해지고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현장에서 수고하는 목포시 공무원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부산시민이라고 소개한 배선영씨는 “목포시장이 발표한 대 시민 호소문과 지원활동에 위로를 받았다”면서 “아직 한 번도 목포에 가보지 못했지만 5월 연휴에는 꼭 목포로 가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美 매체 “북, 풍계리 6차 핵실험 준비 마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

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이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해 핵실험장이 “장전, 거중”(Primed and Ready) 상태라고 전했다.

38노스는 지난 12일자 사진 분석 결과 “북쪽 경도 입구에서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주(主) 자원본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됐으며, 지휘통제소 주위로 사람 몇몇이 보였다”고 말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쪽 경도에서는 입구 바로 옆에 소형 차량 또는 트레일러가 배치됐으며, 지난 10일 동안 경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작업도 진행됐다. 북쪽 경도의 남측 도로에서도 작은 트레일러가 포착됐다.

아울러 주 자원본부에는 장비 등을 실은 운반대 11개가 방수포가 덮인 채로

놓여있었으며 인적도 관찰됐다. 서쪽 입구 등 다른 시설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또 지휘통제소와 경비병막사, 보안 검문소 등에서도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전문가들을 인용, “새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이 곧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쪽 경도 주변의 압석 파편들이 2013년 말 이후 꾸준히 쌓이면서 축조장 너비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는 핵실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을 암시한다고 NYT는 덧붙였다.

아울러 북쪽 경도에 고인 지하수를 펌프로 뽑아 올리는 장면도 포착됐다고 NYT는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김일성 주석의 105돌 생일인 15일 태양절이 핵실험 데데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 사주 풍수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와 풍수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료공개강좌**

- 일시: 2017. 5. 9(화) 오후7시
- 장소: 남구 주월동 398-52, 2층 (구)대동고양빛고을연합회원 우측 에벤에셀교회 2층
- 대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초급반 개강 (4개월 과정)**

- 일시: 2017. 5. 16(화) 오후7시
- 장소: 상동(공개강좌 장소)
- 수강료: 사주 + 풍수 15만원(월)

**컨설팅분야**

- 기감풍수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
- 수맥파 중화, 양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매장, 이장,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대형건물, 토지 등의 풍수 감정
- 원인불명의 우환,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
- 사주감정 및 교육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한국기감풍수연구회  
062)674-4991 / 010-2246-1508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급매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33평)
- 교육환경 최상 / 불로초바로옆
- 시세 4억 3000만
- 급매 4억 1500만원

문의 010-9203-6161